



제21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성료 사인광고 산업의 컨버전스 장

제21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13)이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650부스 규모로 250개사가 참가해 기술 및 정보, 네트워크 교류를 진행했다.

자료제공 |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사무국

한국옥외광고협회와 코엑스 주최로 열린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은 사인&디스플레이 분야의 융합을 실현하는 장이다. 사인광고 업계의 독보적인 전시회로 자리를 지켜온 코사인전은 digiSIGN, LED SHOW와 동시 개최됨으로써 사인 산업의 컨버전스를 지향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담회, 디지털사이니지 컨퍼런스 개최 및 각종 옥외광고대상 및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도시환경공공디자인 특별관 구성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DGI, HP, 엡손, 한국롤랜드DG, 잉크테크, 코스테크, 대영시스템, 스콜피온, 대영시스템, 태일시스템, 포맨테크 등 국내의 주요 메이커 및 판매사들이 참가해 디지털프린팅, 미디어 및 잉크, 자동화 장비, 채널사인, LED, 사인 등 사인업계의 대표적인 아이টে임을 총망라해 전시했다.

산업계로 확대되는 디지털프린팅 컨버전스

코사인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프린팅 부문에서도 컨버전스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프린팅은 옥내·외의 사인&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보편화된 광고기법인데, 올해 코사인전에서는 산업계, 텍스타일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UV프린팅과 섬유, 패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 프린팅 등이 큰 관심을 끌었다.

달리, digiSIGN에서 디지털사이니지 공개

컨버전스를 지향해 온 코사인전의 변화에 따라 업체들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UV잉크젯 프린터 국내 메이커인 달리는 digiSIGN을 통해 자사의 신사업인 디지털사이니지 제품과 솔루션을 최초로 공개했다.

달리는 IR 터치센서를 채용한 네트워크로 구현된 4K 해상도의 110인치 비디오월(2×2)과 고해상도 영상을 원격으로 관리 가능한 DID를 선보였다. 특히 아크릴 백라이트 사인물과 결합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DID)는 디지털프린팅과 디지털사이니지의 컨버전스를 보여주는 대표적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코사인전과 함께 LED/OLED 응용기술산업전(LED@SHOW)과 디지털사이니지 및 키오스크산업전(digiSIGN)이 동시 개최됐다.☞